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아랍 아티스트와의 대화

COLUMN

2013 / 05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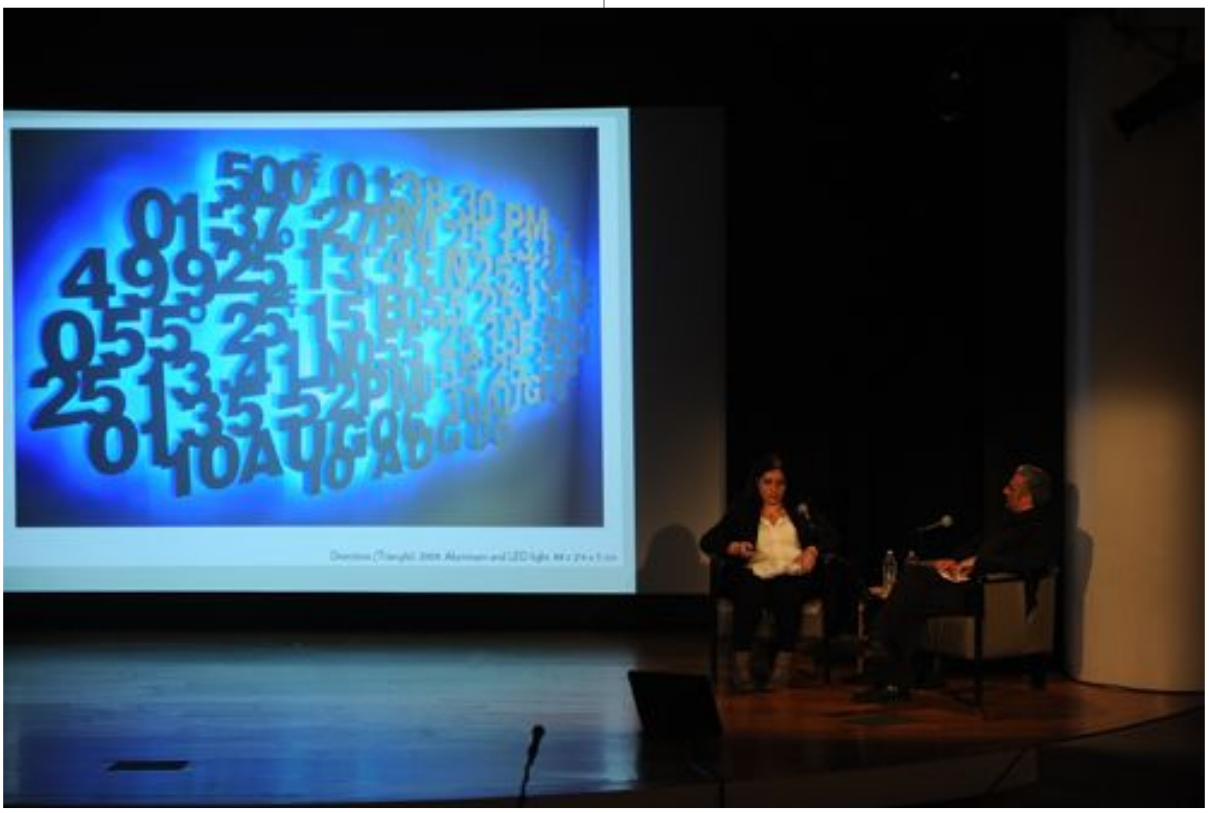
ART IN CULTURE

2000년대 초반부터 아랍 컨템포러리 아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루브르, 구겐하임 등 서구의 대형 미술관이 아랍 미술계에 새 거점을 마련하는 등 아랍 국가들의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가 세계 미술계에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가고 있다. 하지만 서구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본 '중동'과 인류학적 구분인 '아랍' 사이에서 그들의 미술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다. 서구 미술계도 아랍 현대미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Art In Culture는 아트두바이, 샤르자비엔날레 등 부상하는 아랍의 아트씬을 조망하기 위해 2013년 4월호 특집에서 '아랍 컨템포러리 아트'(http://www.art-inculture.kr/content/view/1014/27/)를 다뤘다. 이중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린 아랍 아티스트와의 대화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와의 대화: 모하메드 카젬과 림 파다>를 소개한다.

글 | 이정연



모하메드 카젬(Mohammed Kazem) <Directions> 비디오 설치 250×250cm 2005_사진 퍼포먼스 영상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급격히 변화한 두바이와 그곳에 거주하는 작가 자신의 관계에 주목한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좌담회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좌담회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좌담회



모하메드 카젬(Mohammed Kazem) <Directions> 돌 위에 분필 1100×900cm 2011 Boda Gaya, India